

나주시, 플럼코트(자두+살구) 새로운 활로 개척 나섰다

6개 가공·유통·수출업체와 다자간 업무협약

가공제품 신메뉴 개발·출시·유통·수출 활성화

나주시가 살구와 자두의 교잡종인 플럼코트의 새로운 활로 모색을 위해 생산·가공·유통·수출 분야 업체와 손을 맞잡았다.

나주시는 지난 13일 농업기술센터에서 나주시플럼코트연구회, 주식회사 커피빈코리아, 아라프룻, 모건푸드, 디마인드, 프레시스, 아를터와 플럼코트 소비 활성화를 위한 다자간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4일 밝혔다.

플럼코트는 자두와 살구의 새콤달콤한 맛과 향을 지닌 신종 과일로 나주가 주산지다. 지난 2011년부터 배산업 축소 등에 따른 신규 유망 대체작목으로 재배를 시작했다.

나주지역 플럼코트 재배 면적은 21.4ha, 47농가로 지난 해 생산량 91톤을 기록했다.

이번 협약은 플럼코트 가공식품 개발 및 유통·수출시장 개척을 통한 품종 인지도 상승과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마련됐다.

또 매년 버려지거나 제 가격을 받지 못하는 비규격 농산물의 2차 가공화를 통한 작중 시장 활성화를 적극 도모할 계획이다.

나주시와 플럼코트연구회는 협약을 통해 플럼코트 상품성 향상, 안정적 공급을 위한 농가 지원과 선진 재배기술 보급에 힘쓰기로 했다.

커피프렌차이즈 업계 국내 3위를 자랑하는 커피빈코리아는 나주산

플럼코트를 활용한 차·음료 신메뉴를 개발, 출시할 계획이다.

커피빈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오는 20일 플럼코트가 담긴 '하니 자스민 플럼코트 티' 출시를 예고했다.

유통·수출 전문 업체인 썬아라프룻, 모건푸드, 디마인드, 아를터, 프레시스는 플럼코트 거래물량 확대와 프랜차이즈 시장 인지도 상승 등 효과적인 마케팅 추진에 힘을 합하기로 했다.

강인규 나주시장은 이번 협약과 관련해 "급변하는 기후 환경 속 봄철 이상저온으로 인한 작과량 문제, 수확시기와 연결된 판로 확보 등에 갖은 어



려움을 겪은 플럼코트 농가들의 시름을 덜고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기동취재본부

곡성군, 고압 직류기기 인증 메카로

380억 들인 KTC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 개소



곡성군은 지난 13일 오산면 연화리에서 산업용 고압 직류기기 시험센터(이하 '센터') 개소식이 개최됐다고 밝혔다.

센터는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

원(이하 'KTC')이 차세대 전력시장의 핵심분야인 직류산업에 육성하기 위해 조성한 것이다. 지난 2017년 착공했으며 총 380억(국비 230억, 전남도 40억, 곡성군 40억, KTC 70억)의 사업

비가 소요됐다. 29,623㎡의 부지에 건축 연면적은 7,818㎡(지상 3층)으로 250MVA 직류 단락 시험설비, AC/DC 부하 개폐 시험설비, AC/DC 온도 상승 시험설비 등을 핵심설비로 갖추고 있다. 국내 최초로 1,000V 이상 산업용 직류기기 및 부품에 대한 성능시험이 가능하다.

시험센터가 개소하면서 국내 최고의 공인종합시험인증기관인 KTC 호남전력평가센터도 곡성군으로 이전하고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갔다. 이를 통해 전문성과 안전성, 신뢰성을 갖춘 선진국 수준의 시험인증 역량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개소식에는 유근기 곡성군수를 비롯해 윤병태 전남도 정부부지사, 정중

영 국가기술표준원 제품안전정책국장, 제대식 한국기계전기전자시험연구원장 등이 참석했다.

다만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주민 참석은 배제하고, 내빈은 최소화해 소규모로 진행됐다.

곡성군은 센터 개소로 지역의 경제산업 지도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그린뉴딜, 전라남도의 불우이코노미 비전에 따라 전기 및 전력 관련 산업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KTC는 곡성군과 전남도와 함께 시험센터 2단계 후속사업으로 올해부터 '고압전선 국제 상호 인증 평가 기반구축' 사업을 진행한다.

기동취재본부

담양군, 공예문화상품 공모전 개최

오는 26일~30일까지 접수

담양군이 지역의 역사적, 문화적 특색을 반영한 우수 공예문화상품을 발굴하고 지역공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군 최초로 전국단위 공모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참가가 가능하며 문화, 역사, 관광자원 등 지역의 정체성을 담고 있으며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예술성과 실용성과 갖춘 공예품이면 소재를 불문하고 응모대상이 된다.

다만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된 제품, 보관 및 생산이 어려운 상품

화가 어려운 제품, 타 공모전에 이미 입상한 제품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모접수기간은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이며 방문 접수 또는 우편 접수가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담양군 홈페이지 고시공고란 및 담양군 풀뿌리경제과(061-380-3042)로 문의하면 자세하게 안내받을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참신한 제품을 양산, 지역공예산업 발전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담양=박종영기자

화순군, 포스트 코로나 '온라인 관광 마케팅' 강화

코로나19 대응 비대면 콘텐츠 발굴·SNS 홍보 추진

화순군이 코로나19로 유행으로 여행 기피, 관광 상품 운영 중단 등 관광산업의 위기 장기화에 대응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여행 트렌드에 적합한 맞춤형 온라인 마케팅을 강화하고 나섰다.

군은 색깔있는 화순여행 콘텐츠 제작·추억의 온라인 화순여행 사진 공모·화순 핫스팟 발굴단 운영·맛카페 홍보·파워 인플루언서 홍보·포털 네이버 여행 플러스 화순 관광 홍보·인스타그램 채널 화순 홍보 등 7개 사업을 추진한다.

화순군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화순 관광객 통계는 102만 9855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5.8% 줄었다. 군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 관광산업 위기로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코로나19로 인한 개별 여행 증가, 안전한 관광지 수요 증가 등 새로운 관광트렌드 변화에 맞는 온라인 마케팅 전략을 세우고 다양한 홍보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여행 전문 유튜버와 협업을

통해 '색깔있는 화순 여행'이라는 온라인 콘텐츠를 발굴, 제작해 홍보할 계획이다. 유튜버가 여행 테마에 맞는 화순 지역 1박 2일 여행 코스를 기획해 여행한 후 직접 체험하고 취재한 여행 후기를 작성하고 영상을 제작한다. 영상과 여행 후기를 자신의 유튜브에 게시, 관광화순을 홍보할 예정이다.

'추억의 온라인 화순여행 사진' 사업은 코로나19 이전 시기에 화순 여행 사진 공모 사업으로, 화순 관광을 추억하며 관광 위축 심리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하기로 했다.

블로거, 사진작가 등으로 구성된

'화순 핫스팟 발굴단'도 운영한다. 발굴단은 화순 지역 비대면 관광지를 선정해 직접 여행하며 안전하고 멋있어진 화순 관광명소를 소개한다.

이와 함께 관광 콘텐츠를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 파워 인플루언서와 파워 인플루언서를 통한 홍보, 네이버 여행 플러스 화순관광 홍보, 인스타그램 화순 기획 홍보 등 사업도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관광산업의 재도약을 위해 다양한 비대면 콘텐츠를 발굴해 온라인 홍보 마케팅을 강화할 계획"이라며 "안전한 여행을 위한 방역체계 구축 등 새로운 관광환경을 조성해 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화순=박순철기자

곡성군, 멜론 활용한 투어형 체험



15일부터 곡성군에서 멜론을 활용한 다양한 투어형 체험을 즐길 수 있게 됐다.

현재 멜론체험 프로그램은 멜론 수확 및 시식, 한복 체험 등으로 짜여져 있다. 참가비용은 1인당 15,000원이며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사업단(061-363-7602)에 신청하면 된다. 프로그램 내용은 추후에 추가 및 변경될 수 있으니 신청 시 다시 한 번 확인하

는 것이 좋다.

국내 멜론 주산지인 곡성군은 멜론을 관광 콘텐츠로 개발하기 위해 노력해왔다. 멜론 관련 연계 산업을 활성화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가의 소득을 높이기 위해서다.

그 결과 지난 2019년 '멜론마를 스토리 및 체험·관광프로그램' 개발을 완료했다.

이후 곡성군과 곡성멜론농촌융복합산업사업단은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한 운영자를 양성했다.

그 결과 최종적으로 지난 10월 12일 곡성멜론 체험관광 프로그램 리허설과 현장 모니터링을 마쳤다.

기동취재본부

살기 좋고, 기업하기 좋은

광주에 투자하십시오

광주, 대한민국!

미래로!

정임이고 품요로운 광주

친환경 자동차·에너지·문화산업 육성

에어가전 및 공기산업 클러스터 구축

AI 중심 산업융합 집적화 단지 조성

풍부한 우수인력 및 연구개발 적극 지원

GWANGJU